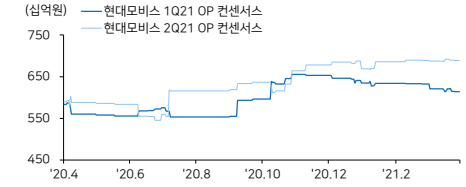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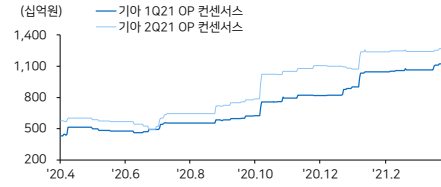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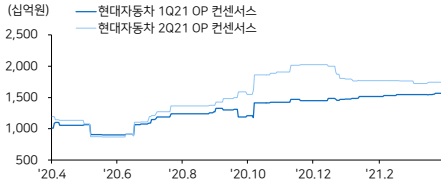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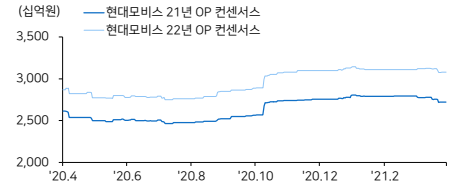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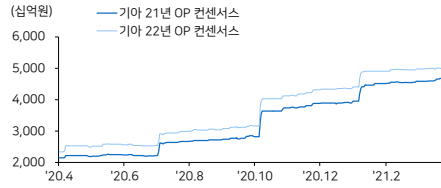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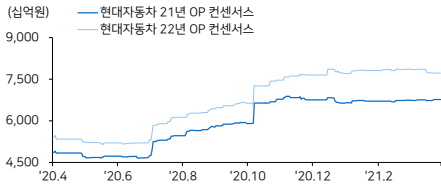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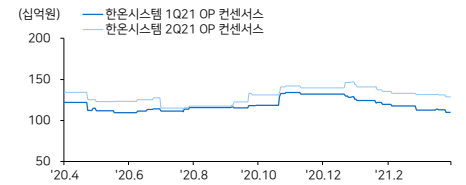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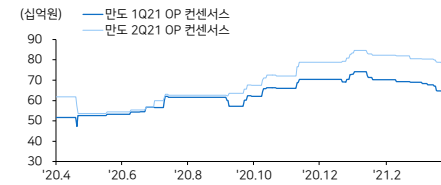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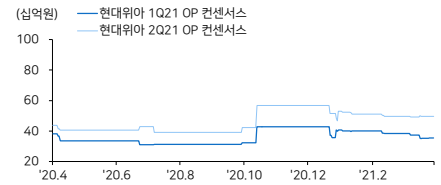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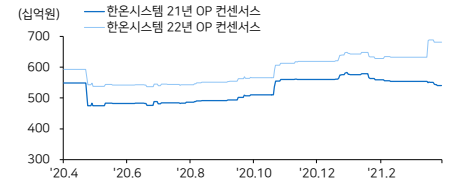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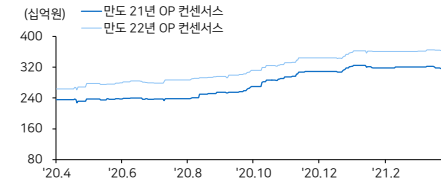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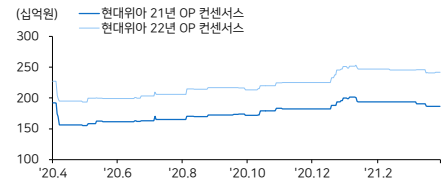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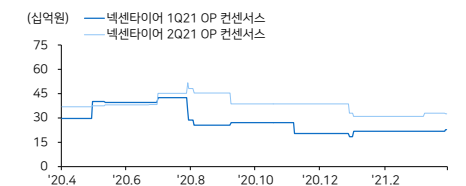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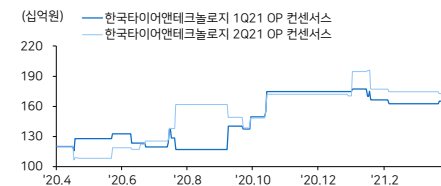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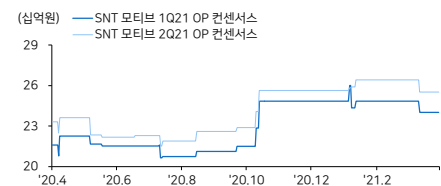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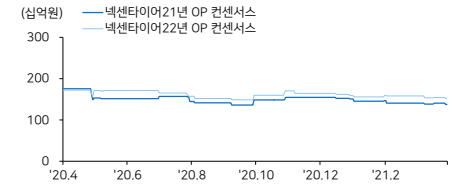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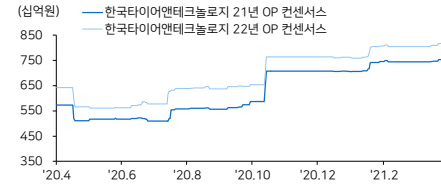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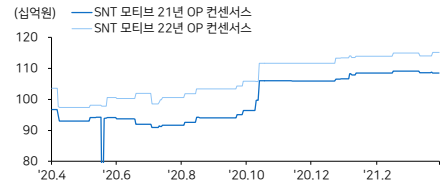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현지화·전동화로 美·중시장 잡겠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현지화'·'전동화' 전략으로 올해 북미와 중국 시장 판매를 지난해 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북미시장 목표는 yoy 12% 증가한 90만 9,000대, 중국 시장 목표는 yoy 28% 증가한 56만 2,000대로 알려졌다. <https://bit.ly/2P3WCrb>

현대차 모션랩, '카셰어' 서비스 美 영토 확대...유럽 진출 모색 (The Guru)

현대차의 미국 모빌리티 사업법인 '모션랩'이 모션 카셰어 서비스를 LA 서부 지역으로 확장하여 25대의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투입할.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향후 유럽까지 진출할 예정. <https://bit.ly/2P7D2zs>

미래 전기차 시장 가능할 상하이모터스...전통차의 '역습' (연합뉴스)

19일 세계 최대 규모의 상하이 모터스가 개막한 가락인 포크스바겐·포드·현대·벤츠 등 본격 양산체제 갖추고 본격 경쟁에 가세했으며, 중국 전통차 업체를 역시 IT기업 또는 스타트업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 <https://bit.ly/3ty7rRr>

볼보, 디디추싱 자율주행 테스트에 XC90 SUV 수백대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볼보는 XC90 SUV를 디디추싱에 제공해 새로운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인 '디디제미니'와 통합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규모는 수백 대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시험 차량이 확대되면 공급량을 늘릴 계획. <https://bit.ly/3aaqkyl>

제네시스, 전기차 'G80e' 세계 최초 공개...최대 427km 주행 (The Guru)

현대차가 상하이 국제모터쇼에서 제네시스 G80e를 공개함. 87.2kW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427km(자체 측정)임. 또한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22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 <https://bit.ly/3ao8uJ>

현대차, '메디 인 인디아' 수출 1위...기아 3위 (The Guru)

현대자동차가 마루티 스즈키를 제치고 인도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함. 글로벌 전략 모델인 '크레타'의 수출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여기에 인도 전략형 SUV '알카자르'까지 가세한다면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https://bit.ly/3dtdfPQ>

폭스바겐,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GTX' 출범 계획...그 배경은? (데일리카)

폭스바겐이 ID.4를 기반으로 한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GTX를 28일 발표할 예정. ID.4 GTX는 폭스바겐 전용 플랫폼 MEB 기반이며 EV 시리즈의 유럽형 버전으로 해치백보다 약간 큰 SUV 포지셔닝을 지향함. <https://bit.ly/3ehnlSLz>

프랑스 진출한 러시아 안엑스..로봇 배송 상용화 속도 내나 (데일리카)

러시아 IT 기업 안엑스가 올해 프랑스 식품품 배달 시장에 진출할 예정. 안엑스는 2020년 말부터 모스크바에서 자율주행 로봇 '로버'를 활용한 식품배달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유럽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확대될지 주목됨. <https://bit.ly/3ao4fU>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